

#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유치 '정조준'

한전 등 16개 기관·7천800명 안착  
농협중앙회 등 50개 기관 이전 건의  
교육·돌봄 인프라 등 정주여건 확장

나주 빛가람혁신도시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대한민국 초광역 균형발전의 핵심 심장부로 주목받고 있다. 29일 나주시에 따르면 현재 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16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해 7천800여명의 임직원이 동지를 틀며 전국 최대 규모의 성공 모델을 입증했다. 특히 한전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를 주축으로 연구개발, 전력 기자재, 정보통신 등 연관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산·학·연 결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로 분봉도에 올랐다.

2014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조성된 빛가람혁신도시는 전국 유일의 공동혁신도시라는 특성을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의 상생발전 모델을 실질적으로 구현해온 계획도시로, 그동안 생활 인프라 혁신을 통해 단순한 '근무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탈바꿈했다. 앞서 지난 2월6일 어린이도서관, 장난감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품은 복합 아동 가족 복지 시설 '빛가람꿈자람센터'를 개관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수영장과 청년창업공간 등을 갖춘 복합문화체육센터가 문을 열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355시간 보육,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콜버스 도입 등 교육·돌봄·교통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기반까지 촘촘히 확충하며 자족형 명품 정주 도시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 이러한 탄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디딤



나주시는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 공동 결의대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집중 배치를 촉구했다.

(나주시 제공)

돌 삼아, 빛가람혁신도시는 행정 통합이 본격화 되면 초광역권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특히 혁신도시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나주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전남도와 광주시는 다가오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에 전사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며, 양 시·도는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한경공단 등 파급력이 큰 핵심 10개 기관을 포함해 총 50개 기관의 추가이전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나주시 관계자는 "빛가람혁신도시는 이제 단

순한 이전 도시를 넘어 전남광주특별시 시대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전략적 연결 거점이다"며 "에너지 산업의 컨트롤타워이자 초광역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반드시 이뤄내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의 진정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준환 기자

## 강진, 내년 4천억 규모 국고 확보 '총력전'

기후대응팀 등 44개 핵심 사업 논의  
지방소멸 대응 '육아수당' 확대 반영  
김준철 부군수 "성장 동력 확보 주력"

강진군이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9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김준철 부군수 주재로 '2027년 국고건의 현안 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예산 확보 체제에 돌입했다. <사진>

이번 보고회에서는 총 44건, 전체 사업비 4천727억원(국·도비 3천542억원) 규모의 현안 사업이 제안됐으며, 군은 국·도비 3천억원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중앙부처 건의·공모사업 대응 가능성을 집중 검토했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활 SOC 확충을 위해 ▲병영전 기후대응팀 조성(1천110억원) ▲강진읍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80억원) 등 총 1천409억 원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 제안됐다.



정주 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옴니면 원터운 조성(800억원) ▲화산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160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군은 현재 자체 추진 중인 '강진군 육아수당'을 국가 정책으로 확대 반영(501억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고려청자 역사유적 공원화(300억원) ▲AI 기반 관광·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영농형 태양광 스마트팜(200억원) 등 미래 산업 육성 전략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김준철 부군수는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은 강진의 미래를 결정지을 설계도와 같다"며 "농어촌 인프라부터 첨단 기술, 인구 정책까지 군민 삶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 기자

## 진도군, 친환경 '과립형 미생물 배양실' 개소

전남 유일 로봇 자동포장 시스템 구축  
30억 투입 연 288t 생산...농업 혁신

진도군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남 최초로 첨단 과립형 미생물 배양 시설을 구축하며 친환경 농업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29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 과 과기경비 절감을 위해 지난 2년간 총

30억원을 들여 과립형 미생물 배양실 조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시설은 기존 액상 미생물의 사용상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과립형 미생물에 투명막 코팅 처리를 거쳐 생산하는 전남 유일의 거점으로, 도양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 농가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첨단 로봇 자동포장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작업 안전성과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했으며,

이를 통해 월평균 30t, 연간 288t 규모의 균일한 고품질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탄탄한 생산 기반을 완벽하게 갖췄다. 기존의 유용 미생물과 더불어 고품질의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병해충 억제와 토양 환경 개선은 물론, 농약 잔류 문제를 최소화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대응에도 유리한 여건을 제공할 전망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과립형 미생물이 대파와 배추 등 지역 주력 노지 채소 재배지에 적합해 친환경 실천 농가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도=박세권 기자



영암군은 최근 군서면 성양리 일원에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통합 RPC 신축 공사에 들어갔다.

<영암군 제공>

## 영암, 230억 투입 연 3만t 처리 '통합RPC' 착공

지역 쌀 산업 가공·유통 중심 체질 개선

영암군이 고품질 쌀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 건립에 첫 삽을 뜨며 지역 쌀 산업의 일대 혁신을 예고했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서면 성양리 일원에서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총사업비 230억원을 투입해 비 가공 시설 현대화와 건조·저장 시설을 구축하는 이번 사업의 핵심은 연간 3만t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통합 RPC 조성이다. 관내 8개 농협이 공동 참여해 그동안 분산됐던 유통 구조를 하나로 묶어냈다. 완공 시 영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절반 이상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탄탄한 인프라가 갖춰진다. 기존 생산 위주의 산업 구조가 가공과 유통, 브랜드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돼 농가 소득 향상을 견인할 전망이다. /영암=나동호 기자

## 함평, 노후 건물번호판 5천247개 정비

6월까지 훼손 표지판 등 일괄 교체  
郡, 안전한 도시 조성 행정력 집중

함평군이 군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위해 낡고 훼손된 건물번호판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관내 총 5천247개의 건물번호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개별 건물에 부착된 번호판은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나면 장기간 외부 환경에 노출돼 빛바래거나 훼손이 발생해 화재나 구조, 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을 어렵게 만들어

군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군은 현장 조사를 거쳐 자연 훼손된 번호판을 전면 무료로 일괄 교체할 방침이다. 다만 사용자 부주의나 건물 공사 등으로 임의 훼손된 표지판은 무상 교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주민은 균형을 방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함평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가 마무리되면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져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소 환경을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23년부터 단계적 정비 사업을 꾸준히 벌여 현재까지 총 1만3천419개를 교체 완료했다. /함평=김영규 기자

## 신안군, 어르신 '희망의 다리' 보행보조차 지원

올해 106명 선정...누적 5천200여명 혜택

신안군은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나섰다. 29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보조기기 마련이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 106명을 최종 선정해 '노인 보행보조차(사진)'를 지원한다.

특히 신안군복지재단과 긴밀한 업무 협약을 맺고 후원금을 연계해 어르신들의 자부담을 대폭 낮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이며, 그의 일반 대상자는 5천원만 부담하면 보조차를 마련할 수 있다.

군의 대표적인 맞춤형 노인 복지 모델로 꼽히는 이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군비 8억원과 후원금 1억원을 투입해 총 5천200여명의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를 보급하며 든든한 '희



망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신안군 관계자는 "보행보조차가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일상생활 유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 (주)동일아트송월타월우산, 아동권리 보호 후원

굿네이버스 '좋은이웃가게' 현판식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가 지역 기업과 함께 아동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섰다.

29일 굿네이버스 전남서부지부에 따르면 최근 목포 (주)동일아트송월타월우산과 함께 '좋은이웃가게'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좋은이웃가게'는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거나 정기후원에 참여하는 굿네이버스의 나눔 캠페인으로, 소상공인을 포함해 병원·학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 참여를 통해 동일아트송월타월우산은 매장 수익금의 일부를 국내 아동권리 보호 사업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하게 된다.

동일아트송월타월우산은 타월과 우산을 비롯한 생활용품 판매와 관측물 대리점·여행업(세계로여행사)을 운영하는 지역 업체로, 평소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해왔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 김재용 동일아트송월타월우산 대표는 "좋은이웃가게 캠페인에 동참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성규 전남서부지부장은 "따뜻한 참여에 깊이 감사드리고, 이러한 나눔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돼 지역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